

“불법투기 꼼짝마!”...영광 드론 환경지킴이 댔다

군, 드론 2기 활용 전 지역 환경오염행위 감시 체계 구축 9월부터 이상수질 감지시스템 설치 운영...악취 포집도

“불법투기 꼼짝마! 드론 환경지킴이가 댔다.” 영광군이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는 ‘드론 활용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드론 비행을 수시로 실시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 발생 시 즉각적으로 오염원을 발견하여 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 목적

이 있다. 군은 지난 6월 말 드론 2기를 구입해 현재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한빛원자력본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한빛원전 주변과 낙월면을 제외한 영광군 전체에 대한 비행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군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진은 물론 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감시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인악취 포집기 2개소, 드론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이상수질 감지시스템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기존에는 직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오염행위를 찾고 확인했으나, 이제는 직원이 직접 가지 않고 드론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 할 수 있다”며 “영광군에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깨끗한 영광 만들기 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군이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군사농공단지. <영광군 제공>



무안군이 '무안군 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중장기적 무안관광 종합 발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무안군 중장기 관광 발전계획...항공특화·역세권관광 역점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무안군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무안관광 종합 발전계획을 세운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무안군은 최근 마무리된 '비전 2040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한 관광 종합 발전계획을 세워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광 발전계획에는 최신 관광 추세를 반영해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는 중장기적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을 거치는 고속철도(KTX) 등 항공특화단지·역세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남약과 오룡 등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

라 도시관광에 특화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기존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한 무안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유치 방안도 모색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이 가진 모든 자원을 관광 자원화해 무안만의 특색있는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무안군이 서남권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업안 목포시 내달 4일까지 공모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안을 다음달 4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사업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우수 사업안에 뽑히면 최우수상(1명)은 30만원, 우수상(2명) 각 20만원, 장려상(3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목포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자치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오염수 피해 예방 TF 구성

영광군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영광군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에 따른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TF 단장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해 영광수협 및 관련 부서 팀장이 참석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각 분야별 선제적 대응 방안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영광군은 현재 일본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점 원산지 표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

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 수산물을 증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안전필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부서관적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마을 조사...연구진은 주민

일로읍 67곳·몽탄면 45곳 대상 양성과정 참여한 주민들로 구성

무안문화원(원장 오해균)이 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마을 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지원하는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의 일환이다.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10주 과정의 문화원 마을조사활동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주민들로 구성됐다.

마을조사 대상지는 무안군 9개 읍면 중 2개 읍면이며, 일로읍 67개 마을과 몽탄면 45개 마을이다.

주민이 직접 마을을 조사 기록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문화원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던 마을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마을 조사에 참여하는 오현철 연구원은 “고향인



지난 4월부터 10주 과정의 문화원 마을조사활동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료증을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문화원 제공>

무안을 지나다니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자원들이 방치되고 훼손된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마을 자원들이 기록되고 잘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기자 노트

글로벌 소통 먹거리 찾은 신안군의 역발상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작은 섬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신안 박우량 군수는 민선 7기 시작부터 폭넓은 행보로 세계시장에 뛰어 들었다. 지역민 대부분이 신안이 국제적으로 성장하기엔 섬이라는 지형 구조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섬은 물론 전남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도 말이다. 박 군수가 바라본 섬 신안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

지역 국장이 신안을 방문해 이틀에 걸쳐 '신안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와 '국제미식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군수가 섬 신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은 또다시 빛나고 있다. 세계 각종 기구와 교류하며 기후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그것이다. 빠른 속도의 유일한 생활 수단인 농업과 어업으

박 군수는 60세대 120명의 인구가 점점 낙후되어가는 안좌면 퍼플섬을 개발해 유네스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 마을로 만드는 등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내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외에도 신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람사르습지 지정 등을 주어진 자연 자산을 창의력을 발휘해 끊임없는 연구와 빈틈없는 준비로 끌어내면서 세계 언론의 조명과 인정을 받았다.

또 섬의 적절한 바람과 빛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최적지로 보고, 이에 도전해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박 군수는 지난달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 초청돼 슬로시티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전 세계 유명인사가 돼 세계와 교류하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UNWTO 해리왕 아시아태평양

로는 신안이 정채될 수밖에 없고, 국내시장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본 원전수 방류 문제를 놓고 수산업 종사자들도 다른 생활수단을 고심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사명감이 발동한 것이다.

박 군수는 이러한 현실에서 남다른 생각과 선제적 대응으로 세계와 소통하면서, 각종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군 현안 사업인 해상풍력 대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정도라면 관광산업인 세계 최대의 섬 국가 정원 조성과 주민들 이익배당금 제도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인구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일석삼조'의 효용도 신안의 미래에 대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박 군수의 해안에 기대를 걸만하지 않겠는가.

/sslee@kwangju.co.kr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종합병원 들어선다

해남우리종합병원과 건립 협약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해남군과 해남우리종합병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사인)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남우리종합병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1단계 사업으로 약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국내외 유력 병원과 연계·협력해 외국인 진료센터, 질환별 특성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의료타

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으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함께 메디텔(의료·관광용 숙박시설)과 시니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의료시설이 갖춰지면 자족형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솔라시도 정주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주 기반 시설인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아동센터 어린이에 '건강 과일 바구니'

5곳에 매주 2차례 공급

영암군이 오는 8월2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건강 과일 바구니'를 전한다.

영암군은 사전 신청을 받아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을 진행할 지역아동센터 5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영양을 보충하고 비만 등 건강 저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지역아동센터는 매주 2차례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공급받는다.

또 영양사와 급원 담당자, 치과의사 등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 관리와 식생활 교육을 할 계획이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이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과일을 먹게 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관리 방법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